

신세대여성들의 화장경험을 통해 본 여성문화 드러내기와 그 저항성에 관한 연구

이현주¹⁾

(서라벌대학 피부미용과 겸임교수)

목 차

1. 서론 :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이론적 배경
 - 2-1. 신세대 문화와 저항성
 - 2-2. 연구분석틀
3. 연구과정
 - 3-1. 연구방법
 - 3-2. 연구대상
4. 신세대 여성들이 화장소비에 부여하는 능동적 의미와 즐거움
 - 4-1. 일상에서의 의미
 - 4-2. 일과 직장에서의 의미
 - 4-3. 집단별 차이 코드로서의 의미
 - 4-4. 화장소비를 통한 즐거움
5. 저항의 방식
 - 5-1. 제도적 규범과 저항
 - 5-2. 화장소비 방식의 변형을 통한 창조적 저항
6. 결론 및 제언
7. 인용문헌

1)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보성 송정타운 103동 1401호

요 약

지금까지 화장에 관한 연구가 화장술의 방법이나 표현 형태에 따른 시대적인 변천 혹은 성분, 제조상의 과학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면, 이 연구는 그 동안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화장의 역사성을 읽음으로써, 화장을 하나의 학문적인 영역으로 승화시키고자하는 시도의 글이다.

화장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더욱이 여성의 삶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띠고 있다. 역사적인 변화와 여성의 지위 변화에 따라서 유행과 그 의미를 달리하여왔으며, 사회·문화적인 특수성을 읽을 수 있는 하나의 텍스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랫동안 여성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해온 '화장'을 여성 문화로서 조명해보고자 하였다. 개인적 차원에서 일상의 화장 경험을 자기 성찰적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여성들간의 공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대안적 화장 문화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연구분석틀로써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주요 이론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화이론의 신수용자 개념을 사용하여 주체적 의미 생성 과정과 의미 생산,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즐거움과 저항의 가능성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즉 여성을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닌 능동적인 수용 주체로 보고, 그 여성들의 삶 속에서 화장의 의미가 어떻게 다르게 규정되는지, 그 속에서 생성되는 즐거움의 기제가 무엇인지, 주체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는 화장의 규범 속에서 저항의 방식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를 살펴보았다.

A study of The New Generation Women's Culture : Women's Culture

Abstract

The history of make-up can go back to the beginning of human being and it can't be separated from women's life. The change of history and women's position have given make-up different form and meanings. So make-up becomes another text which can read

social · cultural specialty. This study has tried to find out make-up as women culture for women have experienced make-up in a specific situation for a long time and a suit of make-up experience from self-retrospect and made an open channel for women and this paper checked out the possibility of alternative make-up culture. This research used new audience theory of cultural studies which is used for communication study and studied active meaning-construction process and its resistance pleasure.

This study saw women as independent subjects not passive victims and how make-up has been different meanings in women's life. And what pleasure is made and how the way of resistance made constructed in the regulation of make-up.

1. 서론 :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화장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유구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초기의 화장에 관한 연구는 의상학이나 미술관련학과를 중심으로 한 학위 논문 몇 편이 고작이었고, 전문대학에 미용관련학과가 등장하면서 차츰 화장에 관한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 논문의 대부분은 주로 화장술의 방법이나 표현형태에 따른 시대적인 변천 혹은 성분, 제조상의 과학적인 연구가 주를 이룬다. 즉 화장을 하나의 기술 내지 도구로써만 보았고, 화장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구성된다는 역사성을 읽지 못했다.

오랜 역사동안 화장은 역사적인 변화와 여성의 지위 변화에 따라서 유행과 그 의미를 달리하여 왔으며, 사회·문화적인 특수성을 읽을 수 있는 하나의 텍스트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그 동안 화장이 여성들의 것으로 인식되어왔고, 전유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주체가 되는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장을 하나의 사회·문화적 산물이며 여성문화로 규정하고, 기존의 화장문화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보드리야르(1970)는 『소비의 사회』에서 소비는 상품의 유용성과 가치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차별화의 욕구 등에 의해 특징지어진다고 본다. 따라서 차별화 된 소비는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을 나타내는 기호로서 작동한다. 소위 가정주부인지, 중산층인지, 모범생인지, 날라리인지를 외모로써 가늠케 하며, 각 계층별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한다. 특히 개인 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이 몸에 밴 신세대들의 경

우, 그들의 문화는 기성세대들의 그것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문화를 구성한다. 지배적 문화질서에 순응하는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다름의 방식으로서의 변용과 저항의 모습들을 곳곳에 만들어 낸다.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화장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또 대학 입학 후 화장의 소비방식도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요즘 대학 신입생들을 보면, 외모로 보아서는 신입생인지 졸업생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메이컵에 대한 표현이 상당히 세련되고 기술적일 뿐 아니라 색깔 표현이나 방법이 과감하기까지 하다. 공식적으로는 분명 고등학교에서는 화장이 금지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눈썹 그리는 솜씨는 30년 화장경력의 50대 아줌마보다도 훨씬 숙달되어 있으며 감탄을 자아낼 정도다.

소위 신세대들에게 있어서 화장이란 기성세대들의 그것과는 다르며, 상당히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개인의 외모 가꾸기나 화장에 대한 관심은 더 이상 사회체제에 종속적인 의미로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주체로서 그 소비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세대여성들의 화장경험을 중심으로 눈썹 그리기, 마스크라 하기 와 같은 세세한 화장 행위에서 생성되는 주체적 의미를 포착하고, 기존의 화장 문화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즉 여성들이 화장 문화의 주체가 되어서 자신의 경험에 대한 성찰과 해석, 그리고 나아가 여성 주체로서의 화장 문화 형성의 장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개개인의 화장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 동안 무시되어왔던 여성의 경험을 공적인 영역으로 드러냄과 아울러 화장이 여성의 삶 속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둘째, 화장을 통해 얻어지는 의미와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수용자 중심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화장의 의미가 각 주체가 처한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차별화 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를 살펴본다.

넷째, 개개인이 각각의 정체성의 모습으로 지배적인 담론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저항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더 나아가 대안 문화로서의 화장 문화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신세대 문화와 저항성

한 사회 내에는 하나의 문화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층별로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 낸다. 특히 90년대 이후부터 등장하기 신세대 집단의 경우, 비록 문화의 생산적 체계에는 비록 소외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의 소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지배 문화에 저항하고 통제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김상미, 1997:6). 이런 문화적인 징후들은 지배 문화에 종속될 뿐 아니라 투쟁의 영역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적응을 시도하거나 협상, 변용, 저항 또는 그것의 해체모니를 전복하려는 시도를 보여 준다.

특히 스타일이나 외모에 관한 문제는 신세대 문화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다. 최신 실 귀걸이, 이승연 목걸이, 힙합바지, 실날 같은 눈썹과 여러 가지 색의 머리카락 염색에 이르기까지 유행하는 스타일에 의해서 그들의 모습이 특징 지워지기도 한다. 그러나 가시적인 외모의 특징보다는 이러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행위의 속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들의 행위는 외모의 동질성을 통한 집단의 동질성을 조직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기인한다고 본다. 드 세르또는 예컨대 학교 교복을 의무화했을 때, 학교 교복은 학생들을 하나로 응집시키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치마길이나 셔츠 색, 바지모양, 타이의 넓이, 금지된 장식이나 머리모양 등 교복의 작은 부분을 변형시킴으로써 학교의 권위를 시험하고 선택된 싸움터로 사용한다(그레엄 터너, 1995:245-247).

특히 헵디지는 그의 책 <하위문화(Subculture)-스타일의 의미>을 통해 하위문화에서의 스타일이 갖는 의미를 강조한다(헵디지, 1998). 하나의 하위문화적 스타일을 의도성을 지닌 저항의 이미지로 읽어야 한다고 본다. 하위문화에서 전통적인 지배 문화와 구별지을 수 있는 방법은 문화 상품들이 하위문화 내에서 사용되는 방식에 의해서이다. 이들은 소비 방식을 통해서 그들의 차이의 정체성²⁾을 드러내며, 금지된 의사소통을 한다. 안전핀의 일반적인 의미로서는 가정에서의 유용품이라는 의미를 지니지만, 펑크 문화와 같은 하위문화에서는 뺨이나 귀, 코 등을 장식하는 섬뜩한 액세서리의 하나로 사용된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정에서의 유용품이라는 안전핀 개념이 다른 방식으로의 소비를 통해서 강

2) 소비를 통한 차이의 정체성에 관한 설명은 장 보드리야르의 논의에서 잘 드러난다. 장 보드리야르는 소비를 필요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욕구의 개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그가 사용하는 욕구의 개념은 어떤 대상에 대한 욕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에 대한 욕구를 의미한다. 이 차이에 대한 욕구란 결코 충족될 수 없으며 따라서 정의 내릴 수도 없다. 아울러 이 욕구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이며, 사회적인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 현대의 소비는 다른 사람과의 차별을 위한 경쟁의 욕구에 의해서 생성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들의 소비행위가 상품의 유용성과 가치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차별화와 위장욕구에 의해서 특징지어진다고 본다. (장 보드리야르, 1970 「소비의 사회」, 이상불 역)

한 저항의 의미를 나타내는 기호적 요소로 작동한다. 화장에 있어서도 ‘예쁘다’라는 지배적 의미와는 다른 방식으로 행해지며, 전통적인 여성적 전용물로서의 의미를 폐기한다(헵디지, 1988:146-147).

헵디지의 연구가 비록 펑크 문화와 같은 청년 하위문화 중심의 논의였지만, 모든 수준에서의 의미의 혼돈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지배적 스타일이나 화장³⁾이 존재한다면, 반대로 그 의미의 혼돈은 하나의 저항적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한다.

드 세르또와 헵디지의 논의는 이제 일상 생활에서의 실천-스타일이나 화장의 영역에서도 그 의미의 생산에 있어서 수용자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또한 지배적 스타일에 대해서 변형, 때우기와 같은 브리콜라주 방식으로서의 저항적 문화 수용방식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여기서 지배적 스타일이란 어떤 한가지 방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학교 교사로서 또는 주부로서, 학생으로서 다양한 형태로서의 지배적 방식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특정 물건의 전용이라는 집단 구성원의 역할도 포함되며, 집단 공동의 이미지에 따라 동질성을 가진다. 즉 독특한 머리 스타일, 화장법, 의상과 같은 외모 등의 형태에 대한 결정화가 나타나고 이것은 다시 집단의 공적인 정체감을 결정하게 된다.

신세대 여성의 이러한 소비방식에 대해서 상업화 내지는 획일화된 소비 방식이라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해석은 신세대 여성을 매우 수동적인 존재로 파악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분명 신세대 여성이 유행이나 추세에 민감한 수동적인 존재이지만 그들은 서로 비슷한 양식의 공유를 통해 신세대적인 특수성을 발효하여 집단의 정체감을 형성한다.

신세대 문화가 갖고 있는 저항성이 거대한 지배질서 문화의 체재를 전복할만한 거대한 힘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헤게모니 이론에서처럼, 권위적인 기성 세대의 문화와 충돌과 협상을 통해 가부장적인 지배 질서에 균열을 낼 수 있음을 설명한다. 헤게모니라는 개념의 사용은 조금씩 뺏고 빼앗기는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문화는 헤게모니의 싸움의 장이 된다. 즉 헤게모니 이론은 신세대가 향유하는 문화나 가치가 전격적으로 거부되고 부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지배 문화권에 포용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짐으로써 신세대 문화의 저항의 잠재력을 인정한다고 보는 것이다.

3) 화장의 분류에서 T. P. O 메이컵이 있다. Time, Place, Occasion (또는 Object)의 약자로서 시간, 장소, 경우 (목적)에 따른 화장 방식을 뜻하며, 이는 지배적인 문화내에서 통용되는 기준으로서의 화장방식이 있음을 나타낸다.

2-2. 연구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오랫동안 여성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해온 ‘화장’을 여성 문화로서 조명해보고자 한다. 개인적 차원에서 일상의 화장 경험을 자기 성찰적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여성들간의 공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대안적 화장 문화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여성문화 연구분석틀로써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주요 이론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화 이론의 신수용자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특히 신수용자 이론은 여성의 삶을 중심에 놓고자 하는 여성문화 연구의 맥락과 그 뜻을 같이 하며, 여성을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닌 능동적인 수용 주체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신수용자 연구에서 집약될 수 있는 논의의 핵심이 바로 수용자 주체의 의미 생성 과정과 주체적 의미 생산이며,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즐거움과 저항의 가능성에 관한 논의이다(강만석,1994:3-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장이라는 지배적 문화를 수용하고 있는 여성들이지만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그 수용과 저항의 조율 방식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화장의 지배적인 의미가 ‘남성의 성적인 대상으로서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예쁘게 가꾸다’라면, 실제 여성들의 삶 속에서 그 의미가 어떻게 다르게 구성되는지, 주체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는 화장에 대한 규범 속에서 저항의 방식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그 속에서 생성되는 즐거움의 기제가 무엇인지를 보고자 한다.

3. 연구 과정

3-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질적인 연구 방법의 하나인 심층 인터뷰 방법을 사용하였다. 기존의 양적인 방법이나 주류 사회과학에서의 인터뷰 방식에서 이끌어낼 수 없었던 심도 깊은 경험들과 이야기들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하였다. 주류 사회과학에서의 인터뷰 방식에서는 인터뷰자와 대상자와의 과도한 친밀 관계를 배제하고, 가능한 객관적 사실을 끄집어내기를 원한다. 그러나 여성주의 인터뷰 방식에서는 이러한 객관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인터뷰자와 인터뷰 대상자간의 친밀성과 의사소통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보다 진실한 사실, 즉 진정한 객관성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의 2차적인 방법으로써 참여관찰법을 사용하였다. 참여관찰법은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문

화 연구의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일상 생활의 탐구와 이해라는 점이라고 볼 때, 문화 소비가 일어나는 일상 공간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참여관찰법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연구대상자들의 선택 과정에서도 이들의 삶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정도의 친분이 있거나 생활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고자 했다.

3-2. 연구대상

신세대가 지칭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20대 여성으로 한정시켜서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자는 총 10명이며, 그들 대부분은 본 연구자와 친분이 있거나 성장 배경이나 가정 형편 등 사생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사람들로, 참여관찰이 가능한 사람들이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0명의 연구대상자중 사례1, 2, 3, 4, 5, 6은 지방에 위치한 K전문대 재학생들이다. 연구자가 이들을 선택하게된 이유는 본 연구자가 일하는 장소로서 접근의 용이점으로 제대로 된 참여관찰을 할 수가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의 모습은 소위 모범생의 문화라기보다는 날라리 문화이고, 지배 문화에 순응하기보다는 반규율적이고 저항적인 신세대 이미지와 부합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의 외모나 화장에 대한 관심은 기성 세대의 그것과 차이가 나며, 그것의 표현 방식에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이다.

사례7, 8은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이다. 이들은 도서관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 중에서 옷차림이나 화장이 그다지 눈에 튀지 않는 학생들을 선택했다. 그 이유는 화장을

<표1> 연구대상자의 사회 경제적 배경

순번	연령	학력	직업
사례1	20	전문대재학	학생
사례2	20	전문대재학	학생
사례3	29	전문대재학	학생
사례4	20	전문대재학	학생
사례5	20	전문대재학	학생
사례6	20	전문대재학	학생
사례7	22	대학재학	학생
사례8	22	대학재학	학생
사례9	27	대학원재학	방송국리포터
사례10	29	대학원재학	사무직

잘 하는 여성이, 화장을 잘 못하는 여성과 같이 차등이 있는 사람을 선정함으로써, 다양한 위치에 따라서 화장의 소비 방식이 어떻게 차별화 되는지 보고자 했다. 사례9, 10은 직장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다. 이들의 경험은 학교나 일상이 아닌 직장과 일이라는 것을 사이에 놓고 화장의 소비방식이 또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심층 인터뷰 장소는 학교, 집, 커피숍과 같이 연구 대상자의 편의에 따라서 다양한 곳에서 행해졌다. 인터뷰 횟수는 연구 대상자에 따라서 1번에서 3회까지 이루어졌다. 또한 인터뷰 방법은 녹음기를 사용해서 녹취를 하고, 다시 풀어쓰는 작업,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부족한 점은 재차 인터뷰를 하거나 전화를 통해 보충 질문을 했다.

4. 신세대 여성들이 화장소비에 부여하는 능동적 의미와 즐거움

일반적으로 화장의 의미는 '예쁘게 가꾸고 매만진다'라는 뜻으로 대부분 여성들이 화장의 소비를 통해서 예뻐진다는 가정을 하고 있고, 여기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화장의 의미가 단지 예쁘다라는 측면에서 뿐 아니라 수용자의 화장 소비 방식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구성된다. 이 장에서는 신세대 여성들이 화장 소비에 부여하는 능동적인 의미와 그에 따른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사례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4-1. 일상에서의 의미

가. 타인을 위한 배려의 윤리

타인을 위한 배려의 윤리는 '정상적' 여성이 갖고 있는 삶의 태도이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규정하고자 한다(Gilligan, 1982). 화장을 하는 의미에서도 이러한 배려의 윤리가 나타난다.

화장을 하고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타인에 대해 배려를 할 줄 아는 사람과 자기 편한 대로 사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면접 대상자의 주관적인 판단이기는 하지만 소위 날라리/범생이에 대한 집단적인 코드가 작동한다. 사례1은 공부밖에 모르는 범생이는 외모는 남이야 뭐라던 신경 안 쓰는 이기주의자로 인식하고, 비록 공부는 잘 못하지만 외모에 대한 관심을 갖는 날라리는 그 만큼 타인에 대한 관심과 주변인과 친화하는 좋은 성격의 소유자로 보고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의 대부분이 화장을 하고 주로 만나는 대상이나 보여주는 대상은 남자

가 아닌 여자라고 했다. 사례10의 경우도 남자 친구 보다 여자 친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여자 친구)을 만날 경우에 외모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반면 남자 친구를 만날 때는 편한 옷차림에 화장 안한 얼굴로 만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화장과 외모 가꾸기가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의미로서, 또한 넓게는 휴머니티의 개념으로까지 받아들여진다.

나. 결점 감추기/심리적 안정감

우리 사회에는 외모에 대한 특정한 규율이 작동한다. 피부는 깨끗해야 하며 입술은 섹시하게 등등, 그리고 그 기준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것을 자신의 외적인 결함으로까지 간주한다. 여드름 자국이나 흉터 자국이 있는 여성의 경우는 각별히 피부 화장을 두껍게 하여 원래의 피부모습을 드러나지 않게 한다든지 눈이 작은 사람은 눈을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아이라인을 두껍고 크게 그리는 방법 등을 동원하여 자신의 결점을 감추고자 한다.

사례3과 사례6의 경우도 피부 트러블 등을 감추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의 화장을 통해서 자신감을 갖게된다고 이야기한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만족이란 원래 자기자신의 모습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부터 출발하는 이중적인 만족이며, 외모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수용하는데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비판도 따른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이러한 결점을 감추기 위한 방식으로 화장을 이용하며, 화장으로 인해 변화된 모습은 여성 자신의 외관적인 변화 뿐 아니라 내면적인 변화까지도 함께 가져다준다. 즉 화장은 사회적 기준에 적합한 외모를 지닌 새로운 주체를 만들어주며, 심리적 만족감과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기제로 작동한다.

다. 잘놀기 위한 필수조건

고등학교 졸업 전에 화장을 시작하는 가장 큰 직접적인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나이트 클럽 같은 미성년자 출입구역에 제재 없이 들어가고픈 욕구에서 비롯된다. 학교 수업 후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또래 집단, 즉 나이트 클럽에서 같이 노는 친구들과끼리 화장도 함께 시작한다. 그래서 백화점 화장실이나 노래방 등에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들의 화장은 나이를 감추고자 하는 까닭으로 자연스럽다기보다는 다소 과장적이다. 피부표현은 희고 두껍게, 눈썹도 가늘고 진하게, 새도우도 진하게 등등, 잘하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화장을 도와주기도 하고 화장품도 서로 돌려가며 쓴다(사례2). 그리고 이들은 화장으로 변한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위치를 성인으로 인식하고 과감한

행동까지도 서슴없이 하게 된다.

사례9의 경우도 모범생의 모습으로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의 화장과 소위 '잘 논다'는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화장하는 방식도 달라졌다고 한다. 피부 화장도 좀 두꺼워지고 평소에 안 달던 속눈썹도 달고, 반짝이 제품을 과감하게 사용하기도 한다. 나이트와 같은 놀이공간에서의 여성들의 화장과 옷차림은 평상시 모습과는 다소 다르다. 특히 신세대 여성의 경우 신체의 과감한 노출을 통해 여성성을 과장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기성세대의 권위를 전복시키기도 하며, 상징적인 표상 행위를 통해 현실의 모순을 회피하거나 벗어나고자 한다(김상미, 1997:68). 또한 이들은 즐겁게 놀기 위해서 화장을 할 경우에는 그 행위도 즐겁고, 화장이 만족스러울 때면 놀이 또한 흥이 난다. 나이트와 같은 놀이 공간에서의 조명은 어둡고 특히 싸이키 조명등 아래에서는 춤추는 사람들의 모습이 조각조각 분산돼 보인다. 여기에다 평상시와 다르게 화장한 모습은 더욱 주체의 모습을 흐리게 만들어, 과감한 춤동작이나 놀이에 몰입하게 해준다. 고대 가면을 통한 유희와 마찬가지로 보다 잘먹고, 잘 놀기 위해서 화장을 이용한다.

4.2. 일과 직장에서의 의미

가. 또 하나의 능력/경쟁 우위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별로 없었던 시절에는 외모로 평가받는 직업적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간의 뚜렷한 구분이 있었다. 모델, 영화배우, 무용수 등 직업적으로 아름다운 외모로 대가를 받는 집단들이 있었으며, 그 집단들은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었다. 노동 시장에 여성이 대거 참여하면서 사회, 경제적 자원과 세력에 접근하자, 노동 시장에서의 아름다움의 평가도 변화하게 되어 노동 시장 전반에 걸쳐 직업적 아름다움의 자질이 요구되기 시작하였다(N, Wolf, 1991, 고석주·정진경, 1992:57, 재인용). 여성들은 사회, 경제적인 경쟁에 있어서 외모가 또 하나의 능력과 같은 평가 기준이 되고,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례7의 경우도 외모가 사회적 세력과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고 있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요즈음과 같이 고학력의 인력이 넘치는 경우에는 더 더욱 외모가 취업의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영어를 잘 해야한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상식이 되어 있다. 대학 생활 동안에 영어 학원 수강은 필수고, 해외 어학연수까지 다녀올 만큼 영어 공부에 대한 열정은 그만큼 보상이 따르기 때문이다. 사례8의 경우는 공부 못지 않게 잘 가꾸어진 외모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

기에 메이크업 학원 수강까지 계획하고 있다. 사회적 경쟁우위를 위해서 화장 또한 실력의 하나라고 생각하기에 적극적인 수용방식을 취한다.

나. 일에 대한 신뢰도

완벽한 화장과 잘 가꾼 외모는 프로적인 이미지를 넘어서 직업적인 자질로까지 평가된다. 특히 미용사나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같은 미용산업의 종사자인 경우 자신의 외모를 유행 감각에 맞는 패션과 헤어스타일과 화장으로 가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고객에게 뷰티컨설턴트를 해줄 때 신뢰감을 형성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미용업 뿐 아니라 다양한 직업분야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고 한다(Dellinger, Williams, 1997:165). 미용사들의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형형색색으로 염색한 머리 스타일이나 과감한 옷차림 등을 통해서 스스로 직업적인 특질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고, 또한 거기에는 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사례9의 경우는 미용산업의 종사자는 아니지만 세련된 외모가 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준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느낀바 있다. 그래서 단순한 미팅에 있어서도 화장하지 않은 얼굴에 청바지, 티셔츠 차림은 자신의 일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기에 항상 일과 관련해서 사람을 만날 때는 한껏 갖춘 모습으로 나간다. 실제로 외모가 직접적인 실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지라도 처음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가 그 직업적인 기준에 적합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평가가 지배적이었다면, 지금은 후천적으로 외모 가꾸기에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는가에 더 많은 점수를 준다. 따라서 예쁜 얼굴보다는 잘 가꾼 몸매나 세련된 분위기, 화장법 등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전문직 여성의 경우, 세련된 외모가 뒷받침될 때 더욱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경향이 있다. 프로다운 외모라는 것은 원래의 선천적인 외모적 자질이 아니라 그만큼 가꾸고 투자를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더 높이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 경제적 권력 획득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력이야말로 곧 권력이며, 외모가 이러한 권력획득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특히 요즈음 대학생 세대의 경우 편의점의 카운터, 커피숍에서의 서빙과 같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이 같은 경제원리를 일찍이 체험한다. 커피숍 아르바이트 자리에서도 외모가 따라주지 않을 때는 취업이 잘되지 않는 반면, 세련된 화장과 잘

꾸며진 외모를 갖추었을 경우에는 일자리를 찾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사례1의 경우와 같은 또래의 많은 여성들은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일에 대해서도 그다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다. 육체적 노동을 하지 않고도 비교적 쉽게 경제적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외모를 평가한다.

좋은 학과에 대한 기준도 ‘돈을 얼마나 잘 벌 수 있는가’와 같이 경제적 자원에 얼마만큼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로 나타난다. 사례5의 경우는 미용관련 학과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졸업 후에 취업이 용이하고 사업적으로 성공했을 경우 경제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이러한 사례를 주위에서 본적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에서 경제적인 성공은 곧 사회적 성공을 의미하기에 화장과 외모는 권력 획득을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4.3. 집단별 차이코드로서의 의미

가. 다름의 인정/하위문화에 대한 자부심

특정 스타일이나 화장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을 드러내는 기호로 작동한다. 사회적으로 화장이 허용되지 않은 고등학생 또래 집단의 경우, 화장의 선택 유무에 따라서 모범생인지 날라리인지의 계층적인 구분이 드러난다. 이들에게 있어 화장은 선택자체가 이미 규범을 깨뜨린 저항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고등학생 시절 소위 날라리 부류의 학생들이 하는 화장은 객관적으로 예쁜 얼굴의 모습은 아니다. 분 화장은 다소 과장적으로 하얗게 표현하고, 눈썹은 지나치게 가늘거나 인위적인 느낌을 준다. 그러나 이들은 남들과 구별되는 자신의 모습을 즐기고, 그렇게 하고 다닐 수 있다는 용기에 더 많은 점수를 준다. 남들과 다른 모습, 날라리 그룹이라는 것을 화장이나 스타일을 통해서 오히려 드러내고자 한다. 또한 이들은 ‘잘 논다’, 내지는 날라리의 개념을 ‘좋다’, ‘나쁘다’식의 이분법적인 구도로 보지 않는다. 사례4가 좋아하는 외모 가꾸기의 방식이 눈에 띄는 스타일이다. 보통 사람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스타일, 그렇게 하고 다니기에는 용기가 필요한 스타일 그런 스타일에 더 많은 점수를 준다. 따라서 파격적인 스타일을 추구하는 친구에 대해서도 그의 용기와 과감성에 높은 점수를 준다. TV나 영상매체를 통한 스타들의 의상, 헤어스타일, 화장을 그대로 따라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보고 즐기는 이미지를 스스로 투영시켜보는 적극적인 유희로서 화장을 한다. 따라서 그들의 외모를 보고 주위에서 날라리라고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며, 인정해주어야 할 다른 삶의 방식으로 생각한다. 지배적인 질서가 규정하는 방식

의 규범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화장의 스타일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나. 친구들 사이의 인기/유행 따라잡기

신세대들이 즐겨하는 화장이나 외모 가꾸기의 방식은 유행의 흐름을 타는 것이다. 유행하는 귀고리나 새도우 색깔, 립스틱 색깔에서 신세대와 그렇지 않은 부류를 구분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유행은 기성 세대의 그것과는 다르며, 기존의 미학적인 것과는 차이가 난다. 이들이 또 좋아하는 외모 가꾸기의 방식이 눈에 띄는 스타일이다. 보통 사람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스타일, 그렇게 하고 다니기에는 용기가 필요한 스타일 그런 스타일에 더 많은 점수를 준다. 이들은 TV나 영상매체를 통한 스타들의 의상, 헤어스타일, 화장을 따라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즐기는 이미지를 자신들 속에서 만들어나간다. 즉 눈에 띄는 화장 방식이나 스타일로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노력한다. 이는 단지 외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 뿐 아니라 타인에게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기 위함이다.

기성세대들이 친구를 평가하는 방식과 신세대들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고등학교 시절에 인기 있는 학생은 '공부 잘하는 학생'과 같은 모범생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춤 잘 추는 사람', '노래 잘 부르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다른 재능들이 친구들간의 관심을 끄는 요소로 작동한다.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자신의 외모를 잘 가꿀 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화장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수학 문제 하나 더 잘 푸는 것 이상의 능력으로 평가받는다. 사례7의 경우를 보면 이성간의 친구 뿐 아니라 동성간의 친구에 있어서도 외모가 친구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이야기한다.

4.4. 화장소비를 통한 즐거움

가. 능동적 선택 행위로서의 즐거움

연구 대상자들 대부분은 그들 화장의 소비 방식이 주체적인 선택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 화장을 많이 하든, 안 하든, 적게 하든, 차별화 되는 방식으로 하든, 외부의 강압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이기에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들이 화장을 의미화하는 방식을 보면, '타인을 위한 배려', '친구들 사이의 인기를 위한 수단...', 과 같이 각자의 위치에서 주체적인 해석의 방식으로 화장을 수용한다. 특히 신세대 여성들이 외모나 화장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권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자원으로서의 의미가 강하게 나타난다.

물론 경제적인 권력에 접근하기 위해서, 사회적 권력을 얻기 위해서 외모 관리에 힘을 쏟기도 하지만 화장을 거부할 줄도 알고, 지배적인 중심을 향한 권력이 아니라 다른 의미의 권력을 추구하기도 한다. 즉 소위 날라리 문화에 있어서의 화장과 외모 가꾸기는 그들 문화 내에서 친구들 사이의 인기를 얻기 위한 권력 수단으로 작동하기도 하는데, 여기서의 권력이란 우리 사회에서 흔히 통용되는 방식의 사회·경제적인 권력이 아니다.

사례10의 경우는 직장 여성 하면 의례 화장을 해야되는 것으로 처음에는 인식하고 화장을 시작했다가 불편함을 느끼고, 그 이후로는 화장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한다. 여자라면 누구나 해야하는 것 내지는 기본적인 예의로서의 화장이라는 사회적인 통념을 스스로 깨뜨릴 줄 알고, 주체적으로 화장을 거부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최근 인기 텔런트나 슈퍼 모델들까지도 화장하지 않은 그들의 얼굴을 대중들에게 스스럼없이 노출하며, 또 다른 이미지를 과시하기도 한다. 화장하지 않은 얼굴을 많은 사람들 앞에 내보인다는 것은 우리 사회 통념상 그리 쉽지 않은 일이기에, 화장하지 않고 외출하는 것 자체가 주체의 능동적인 자유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나. 주체 숨기기의 즐거움

‘화장을 하고 나서 딴 사람이 되었다’, ‘화장 안한 얼굴을 몰라보겠더라’ 등은 흔히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중의 하나다. 이는 화장을 통해서 이전의 주체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다. 여성들은 화장으로 자신의 모습에 변화를 주는 것을 유희적으로 즐기기도 한다. ‘결점 감추기’에서의 의미와 같이 어느 특정한 부위를 화장으로 가려주는 의미도 포함되지만, 단순히 결점을 가린다는 의미 뿐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화장으로 극적인 변화의 재미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드라마 분장과 같은 극중에서다. 한 사람의 배우가 어떤 드라마에서는 술집 종업원이 되기도 하고 다른 극중에서는 뛰어난 비즈니스 우먼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연기자가 극중 인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각적인 변화가 따라야 하며, 여기서 분장이 필요한 것이다. 분장은 단순히 연기자의 외면적인 변화 뿐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가져다준다. 즉 분장은 연기자 본래의 주체를 감추고 극중인물과 자기 동일시를 통해 연기에 몰입하게 해준다. 이는 비록 분장의 효과에서 뿐 아니라 일상에서의 화장 경험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나이트 클럽에 놀러갈 때에 반짝이, 속눈썹, 입체 화장 등을 이용한 화려한 화장은 번쩍이는 조명 속에서 그 이전의 가정주부나 모범생으로서의 주체가 아닌 무대 위의 무희가 된 듯한 생각이

들게끔 해 춤놀이에 몰입하게 해주기도 한다.

사례9의 경우는 방송국 리포터로 일을 하고 있어서 전문가에게서 화장을 받아보기도 하고, 화장을 통한 변화의 가능성을 몸소 체험한 바 있다. 그리고 화장한 자기의 모습만을 보아온 사람들이 자기의 작은 입술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묘한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아직 미성년자들에게 있어 화장은 그들에게 성인 세계의 경험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렇듯 화장은 주체의 위치를 변화시켜주기도 하며, 진짜 얼굴/가짜 얼굴이라는 이분법적인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다. 대접받는 즐거움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항상 사회적으로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어 왔다. 이런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남성들의 그것과는 또 다른 의미를 띤다.

여성들은 자신들의 의사가 존중되고 대접받을 수 있는 공간인 미용실과 백화점을 좋아한다. 여성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접받을 수 있는 미용실과 백화점 출입을 즐기며, 거기서도 더 나은 대우를 위해서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된다.

한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 됨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력, 집안과도 같은 사회적 배경과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우리는 이러한 것보다 첫눈에 또는 스타일이나 외모의 이미지로서 사람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TV 영화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보여지는 무수한 이미지들이 특정한 이미지를 특정한 코드로 읽어야 한다는 문화적 틀을 만들기 때문이다. 신세대 여성들에게 있어서 화장은 이러한 이미지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코드가 된다.

사례9의 경우는 방송국 프리랜서 리포터라는 직업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다. 자신이 평소에 잘 알던 사람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든 안 하든 어떤 옷차림이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모가 절대적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자판기 커피와 커피숍 커피의 비유로서 이야기한다. 자판기 커피는 일회용 종이컵, 서서 마시는 것과 같이 값이 싸고 누구나 쉽게 대할 수 있는 것, 커피숍 커피는 그 보다는 가격이 비싸고 격식과 예의를 갖춘 것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 편한 옷차림으로 일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일에 대한 신뢰도도 낮게 평가될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대우에 있어서도 커피숍 커피가 아닌 자판기 커피로 떨어진다. 그래서 사례9는 이미지로 인해서 자신이 불합당하게 평가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외모에 신경을

쓴다. 이와 같이 여성들은 화장과 잘 꾸며진 차림새를 통해서 사회적 대우가 한결 상승됨을 생활을 통해 실감하며, 대접받는 즐거움을 위해서 화장과 옷차림에 투자를 한다.

5. 저항의 방식

화장을 통한 저항의 방식이 항상 동일하지는 않다. 주체의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화장이 보편적인 여성성의 특질을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보았을 때 화장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저항이 되기도 하지만 화장을 어떤 의도로 사용하느냐 또는 주체의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화장을 별로 하지 않은 얼굴, 자연스러운 모습을 이상적인 교사의 모습이라고 규정하는 사회에서는 진하게 화장한 모습이 저항의 모습으로 읽혀질 수 있으며, 그 반대로 화장하지 않은 수수한 얼굴이 오히려 규범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하위집단의 구성원들이 이러한 저항적 문화 수용 방식을 취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저항적 즐거움'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 즐거움은 가부장적인 위계질서, 도덕, 기존의 가치 등에 위반함으로 인해서 생성되는 즐거움을 말하며, 바르뜨의 금기를 깨는 즐거움과 일맥상통한다.

5-1. 제도적 규범과 저항

가. 오피스 레이디 정형에 대한 거부

직장 여성을 위한 화장법과 코디법이라는 것이 잡지책이나 전문서적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고,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눈에 튀지 않는 색상의 옷과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화장법 등이다. 이러한 스타일은 상사의 말에 순종하고, 다분히 수동적인 업무스타일 자체를 보여주는 표상이다. 따라서 이러한 외형적인 스타일을 벗어났을 때 그 효과는 전형적인 사무직 여사원의 업무나 태도, 수동성에 대한 거부의 효과를 보여준다. 이는 다른 어떤 말이나 행동보다도 효과적이다.

사례10의 경우는 스스로 직장상사나 주위 사람들을 별로 신경 안 쓰고 자기하고 싶은 대로 옷차림이나 화장을 한다고 한다. 양말도 안 신고, 반바지 티셔츠 차림으로 출근도 하고, 외부에 출장도 간다. 게다가 샌달 사이로 보이는 발톱에는 빨간색, 검정색 등의 화려한 매니큐어색을 칠하는 것을 즐긴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다른 직원들의 반응은 "아이구 참 세상에 세상에"와 같이 기가 막힌다는 표현을 한다. 그러나 사례10의 경우는 그런

반응을 개의치 않으며,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을 추구한다. 맨발에 빨간색 매니큐어가 주는 이미지는 '야하다', '잘 논다', 내지는 서비스에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의 장식물이라는 느낌을 준다. 그런 이미지와 권위적인 관공서의 이미지는 서로 상반된다. 빨간색 매니큐어는 하나의 작은 장식물이지만 지배 권력의 대표적인 모습인 관공서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위협이다.

나. 모범생 이미지에 대한 거부

우리 사회에서 '여자답게'라는 말 못지 않게 많이 통용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학생답게'이다. 중학생은 중학생다워야 되고,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다워야 되고, 대학생은 대학생다워야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생답다'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선생님의 말씀에 충실하는 것과 같이 행동을 뜻하는 내용도 있지만, 보여지는 모습 즉 외적인 이미지도 학생다워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고등학생다운 이미지는 단정하게 교복을 입고, 눈썹수정이나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 등이고, 대학생다운 이미지는 너무 화려하지 않은 옷차림에 약간의 화장이 허용되는 모습이다. 고등학생 신분에서 화장은 그 자체가 바로 금기를 깨는 저항의 모습이 된다.

사례3의 경우는, 고등학교 시절 머리염색이나 화장으로 인해서 선생님들로부터 야단을 많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재시도 했다고 한다. 공부를 최고의 미덕으로 아는 우리사회의 학교 분위기에서 '튀는 외모, 튀는 화장'은 이러한 억압적인 교육에 대한 거부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5-2. 화장소비 방식의 변형을 통한 창조적 저항

가. 과장적인 여성성 드러내기/여성성에 대한 거부

화장을 통한 저항의 방식에 있어서도 하나는 여성성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화장 자체의 거부고 하나는 타인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적극적인 자기표현의 방식으로 화장을 하는 것이다. 두 가지 저항의 방식이 극과 극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주체가 어떠한 위치에서 화장을 의미화 하느냐에 따라서 그 소비방식이 달라진다고 하겠다.

사례8의 경우는 화장을 진하게 하고, 퍼머 머리를 과장되게 부풀렸을 때 타인의 시선을 압도하는 즐거움과 화장하지 않았을 때의 편안한 즐거움에 대해서 동시에 이야기한다. 전자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화장이나 패션을 통해 과장적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했을 때의 즐거움이고, 후자는 매일 일상처럼 화장을 해야된다는 강박관

념에서 벗어나 화장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자유로움과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다.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주체가 누릴 수 있는 둘 다 해방의 즐거움을 이야기한다. 즉 화장을 하는 것, 하지 않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주체가 가질 수 있는 자기 통제력의 즐거움이 여기서도 나타난다고 하겠다. 어떤 입장에서 화장을 바라보느냐의 문제다. 맹목적으로, 일상의 하나로서 이루어지는 화장, 남의 시선을 의식한 화장은 구속적이고 억압이지만,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신체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면, 반대로 해방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 전통적 화장 방식의 거부/ 결점 드러내기

화장을 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결점 감추기다. 즉 지배적인 문화가 규정하는 이상적인 미인형이나 표준형이라고 규정하는 얼굴이나 스타일로 만들기 위해서 화장하는 방식이다. 눈은 좀 더 크게 보이게, 얼굴은 좀 더 작게 보이게, 코는 좀 더 높아 보이게, 피부는 잡티가 하나도 보이지 않게..., 등이다. 이러한 방식으로서의 화장방식이 존재하기에 이를 거부하는 방식은 저항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즉 지배 문화가 결점이라고 규정하는 결점을 오히려 과장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서의 화장이다. 1960년대 프랑스의 모델 튀기(Twiggy)가 그 대표적인 예다. 그녀의 화장법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입술을 조그맣게 그리기, 과장적으로 표현한 주근깨와 같이 그 당시의 전통적인 미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와 더불어 깡마르고 왜소한 체격 등의 굴곡 없고 밋밋한 신체는 현대의 초연함을 표현하기도 했으며, 전형적인 여성성에 대한 저항의 이미지를 보여주었다(조은별, 1995:52).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 가운데는 두드러지게 자기 자신의 결점을 과장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의 화장을 사용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지배적인 미인의 모습이나 표준이라고 규정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의미의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식의 화장은 충분히 저항의 한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최근의 화장방식은 더 이상 불안정한 얼굴에 대한 교정의 의미보다는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나 획일적인 미의식에 도전하는 하나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한 방법으로 나타난다⁴⁾.

6. 결론 및 제언

4) 대학의 축제 행사때 얼굴이나 손, 목등에 잠자리, 나비, 꽃 등의 문양을 그려넣는 방식이 몇년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했고, 최근 일부 연예인들은 기존의 화장이라기보다는 페이스페인팅용 물감을 이용한 페인팅을 하고 등장하기도 한다. 차츰 기존의 미학적인 방식과는 차이가 나는 화장방식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세대 여성이 위치한 삶의 맥락에 따라서 화장을 수용하는 방식이나 의미 구성방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직장 여성의 경우, 화장은 그 사람의 일의 능력에 대한 신뢰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화장이나 외모 가꾸기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노력과 투자에 대한 결과로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소위 신세대들은 화장을 경제적 권력 획득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화장이나 외모 가꾸기를 장래를 위한 하나의 투자라고 보고 있다. 특히 날라리 계층의 여성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화 되는 방식으로서의 화장에 많은 의미를 두고 있으며, 자신의 존재를 타인에게 각인 시키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화장을 사용한다.

둘째, 화장 의미에 대한 주체의 변용적 해독을 통해서 화장의 지배적 의미에 대한 균열 가능성을 보여 준다. 이는 끊임없는 의미의 창출을 통해서 기표 대 기의라는 대칭적 구조의 분열을 초래함으로써 지배적 의미의 해체를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화장의 의미는 그 사회마다 또는 화장을 수용하는 주체에 따라서 그 의미를 달리 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다른 방식의 의미들을 살펴보면, 먼저 '타인을 위한 배려의 의미'를 들 수 있다. 화장을 하고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타인에 대해 배려를 할 줄 아는 사람과 자기 편한 대로 사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화장과 외모 가꾸기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관심의 의미로서 넓게는 휴머니티의 개념으로까지 받아들여진다. 또 화장은 '잘 놀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중세의 카니발에서 가면을 통한 유희와 마찬가지로 화장을 통해 변화된 모습은 주체의 위치까지 변화시켜 준다.

셋째, 많은 신세대 여성들이 화장의 소비를 통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으며, 그 즐거움의 대표적인 기제가 바로 '능동적 선택 행위'라는데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들은 화장을 선택한 것처럼 주체적으로 화장을 거부하기도 한다. 이러한 즐거움의 주요 근원이 바로 의미 구축에 행사하는 통제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또한 여성들은 '주체 숨기기'의 방식을 통해서 주체의 현 위치까지도 변화시키는 경험을 하며, 화장으로 변화된 주체의 모습을 유희적으로 즐기기도 한다는 것이다.

넷째, 외모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 차원에서의 규범의 존재는 다양한 방식으로서 저항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화장을 통한 저항의 방식은 항상 동일하지는 않으며, 주체의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화장이 보편적인 여성성의 특질을 드러내는 방식이라 보았을 때 화장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저항이 되기도 하지만 화장을 어떤 의도

로 사용하느냐 또는 주체의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가령 사무직 여사원의 경우 자연스러운 화장과 눈에 튀지 않는 옷이나 헤어스타일 등이 명문화되지 않은 제도적인 규범으로 작동한다고 보았을 때, 이에 대한 거부는 외형적인 스타일의 거부뿐 아니라 전형적인 사무직 여사원의 업무나 태도, 수동성에 대한 거부의 효과를 보여 준다. 이는 다른 어떤 말이나 행동보다도 효과적이다. 헵디지는 하위문화 내에서의 저항을 거대한 지배 질서 내에서의 '소음'과도 같은 것으로 비유하면서, 즉각적인 체제의 전복이나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지배문화를 교란시키고,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것으로 보았다.

다섯째, 화장의 변형적 소비 방식을 통한 대안 문화로서 화장문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의 화장방식은 전형적인 미의식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미학을 반영한 아방가르드적인 예술의 한 분야로 자리잡고 있다. 페이스 페인팅이나 바디 페인팅과 같이 사람의 신체에다 아티스트의 미의식을 반영한 다양한 무늬를 그려넣기도 하고, 살갓을 뚫는 방식과 같이 기존의 시장 논리나 전통적인 여성성의 개념과도 무관한 방식의 화장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도미니크 파케, 1998:94). 여기서의 새로운 미학은 페미니즘에서 이야기하는 새롭게 보기-탈미학(pre-aesthetics)과도 일맥 상통하는 면이 있다. 전형적인 여성성에 기초한 화장이 아닌 대안 문화로서 화장문화는 지금 시작의 단계에 있지만,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한 방식으로서의 화장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여성 문화 연구는 시작 단계에 불과하며 일상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여성 문화 전반에 걸친 논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7. 인용문헌

1	Beaudrillard, J., 『소비의 사회 그 신화와 구조』, 이상률 역, 서울, 문예출판사, 1991.
2	김상미, “나이트 클럽을 통해 본 신세대 놀이문화의 저항성에 관한 연구”, 계명대 석사학위 논문, 1997, P6.
3	Turner, G., British Cultural 『문화연구 입문』, 김연중 역, 한나래 언론문화총서 16, 서울, 한나래, 1995, P245-247.
4	Hebdige, D, Subculture : The Meaning of Style ; 『하위문화 : 스타일의 의미』, 이동연 역, 서울, 현실문화연구, 1998, P146-147, 160-172.
5	강만석,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의미-재미-권력의 문제를 통해 본 신수용자론 연구-존피스크의 능동적 TV수용자론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1994.
6	Gilligan, C., 『In a Different Voice』,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7	Wolf, N., 『Beauty Myth : How Images of Beauty are against Woman』, New York: The Norton Library.
8	고석주 · 정진경, “외모와 억압”, 『한국여성학8집』, 서울, 한국여성학회, 1992, P57.
9	Dellinger, K. · Williams, "Make up at Work", 『Gender & Society』, Vol. 11, No. 2, 1997, P4.
10	조은별, “20세기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96, P52.
11	Paquet, D., Une Histoire dela Beaute, 『화장술의 역사-거울아, 거울아』, 지현 역, 서울, 시공사, 1998, P94.